



새누리당
산업통상자원위
국회의원
(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)
Tel : 02.784.2371 / Fax : 02.788.0254 <http://blog.naver.com/uhh609>

보도자료

윤한홍



1. 디자인진흥원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 커

-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시장 선정 시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권 등 지역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

(1) 디자인진흥원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, 시범사업 결과 고객유입 및 점포 매출이 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!

- 201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, 추진된 ‘부여중앙시장’은 점포 1일 평균매출액이 장날 68%, 장이 서지 않는 날 58% 증가함
-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‘안동시장’, ‘수유마을시장’ 등 2개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중

(2) 성과가 뛰어난 디자인진흥원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, 전통시장 지원사업체 선정시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권 등 지역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

- 현재 디자인진흥원은 중기청의 총 13개의 전통시장 육성 사업 가운데 ‘특성화시장 육성 사업’ 및 ‘지역선도시장 사업’ 등 2개 사업을 통한 2개 시장에만 참여하고 있음 →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확대 시급
- 전통시장 지원사업체 선정시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권 등 지역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→ 현재 경남지역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육성이 시급
 - 음식·숙박업 대출 규모가 1년 반 만에 3,777억 급증(전국 평균 2배)
 - 올 8월 실업률이 3.7%로 전년 동월 대비 1.6%p 급등(전국평균 상승폭의 8배, 실업

- 를 증가율 전국 1위)
- 소비자동향지수(CSI)는 65p로 전국 최하위 기록

1. 디자인진흥원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 커

-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시장 선정 시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권 등 지역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

(1) 디자인진흥원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, 시범사업 결과 고객유입 및 점포 매출이 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!

- 2015년 전통시장서비스디자인 모델 개발을 위해 ‘부여중앙시장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
- 구조물 디자인 개선과 같은 전통적 디자인 개선활동과 함께, 시장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고객유치 방안 마련, 시장상품 개발 등의 서비스 모델을 디자인함
 - 시범사업 결과 부여중앙시장은 점포 1일 평균매출액이 장날 68%, 장이 서지 않는 날 58% 증가함
 - 시범사업 전(2015년 1월) 1일 평균매출액: 장 서는 날 24만원/ 장 안서는 날 22만원
 - 시범사업 후(2015년 9월) 1일 평균매출액: 장 서는 날 38만원/ 장 안서는 날 37만원

디자인진흥원의 부여중앙시장 주요 활동 및 성과

시범사업 주요 활동	시범사업 성과
(고객유치) 청년 5일장 사업모델 - 장터를 마련, 지역청년이 시장상인 판매물건이 아닌 문화상품(공예품)을 5일마다 팔게하여 시장유입고객 촉진 및 청년창업 촉진	유입고객 131% 증가
(상품개발) 연꽃 도깨비빵 (신상품 모델) - 지역문화 이야기를 전달하는 풀빵 서비스 상품 개발 ('17년 판매 부스 확산 예정)	1부스 1일 평균매출 30만원 달성
(고객유치+상품개발) 낙화함도 식후경 등 (신서비스) - 인근 관광코스 유람시 시장에서 만든 도시락을 들고 도보 여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 증가	점포 평균매출 167% 증가

*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

□ 디자인진흥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, 2016년 2개 시장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 중

- 2016년 안동시장, 수유마을시장 등 2개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중

- 글로벌명품시장(안동구시장연합) 추진현황
 - 기간 및 예산 : '16년 ~ '19년 (3년), 50억원
 - 추진방향 : 국내외 고객유입을 위한 서비스 모델 및 기반 구축
 - ① 특성화 상품 및 서비스개발 ② 관광 프로그램 연계 사업모델 개발
 - ③ 판매서비스 및 기반구축 ④ 역사·문화기반의 시장 정체성 구축
- 지역선도시장(수유마을시장) 추진현황
 - 기간 및 예산 : '16년 ~ '19년 (3년), 25억원
 - 추진방향 : 시장상인과 청년창업이 연계되는 사업모델 개발
 - ① 고객선도 서비스모델 개발(늘 가면 좋은 시장)
 - ② 도매형 사업모델 개발(24시간 시장)
 - ③ 지역자원 연계 사업모델 개발(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상공인이 소통하는 시장)

(2) 성과가 뛰어난 디자인진흥원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, 전통시장 지원사업체 선정시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권 등 지역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

□ 전통시장의 중요성과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성과 고려시, 향후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확대 필요

- 전통시장은 소매업 일자리의 60%, 매출의 11.6%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·문화의 주요자원
- 시설물 외관 디자인 개선은 물론 상품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수요 중심으로 디자인(컨설팅)해야 함
- 현재 디자인진흥원은 중기청의 총 13개의 전통시장 육성 사업 가운데 '특성화시장 육성 사업' 및 '지역선도시장 사업' 등 2개 사업을 통한 2개 시장에만 참여하고 있음 →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확대 시급

□ 전통시장 지원사업체 선정시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권 등 지역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

- 현재 경남지역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태

- 음식·숙박업 대출 규모가 1년 반 만에 3,777억 급증(전국 평균 2배)
 - 올 8월 실업률이 3.7%로 전년 동월 대비 1.6%p 급등(전국평균 상승폭의 8배, 실업률 증가율 전국 1위)
 - 소비자동향지수(CSI)는 65p로 전국 최하위 기록
-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육성이 시급

「소비자동향지수(CSI)」는 6개월 전과 현재경기 상황을 비교하는 심리지수. 이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남 지역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뜻함